#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9월 2주~9월 3주)

## □ 정책 및 시장 동향

### 1. 프로젝트 정보

ㅇ [인프라] 인정부, 거대 방조제 건설 사업 구체화[1](Bisnis, 9/14)

- 정부는 자바 북부 해안 지역의 침수 및 해안 침식 대응을 위한 거대 방조제(Giant Sea Wall) 건설 사업을 구체화, 프라보워 대통령의 우선사업으로 추진. 인프라 및 지역개발조정부 장관 Agus Harimurti Yudhoyono(AHY)는 반텐부터 동부 자바까지 통합 해안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북부자바해안관리청(BOPPJ)과 사업계획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

- 정부는 지반침하가 심각한 주요 지역을 우선 개발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 중, BOPPJ는 고등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 계획 마련 추진. 국가연구혁신청(BRIN)도 6개월 이상 관련 기술을 연구 중이며, 국내 기술과 해외 기술을 접목해 사업 추진 방안 마련 예정

ㅇ [인프라] PT ADHI, LRT City 사업에 Danantara 자금 투입 계획[2](CNBC Indonesia, 9/9)

- PT Adhi Karya(ADHI)는 LRT City 사업 완공을 위해 Danantara가 PT ADHI 및 자회사에 자금을 직접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 현재까지 해당 자금 지원 방식의 구조와 자금 수령 주체, 지원 금액 등은 검토 단계, PT Danantara Asset Management와 추가 논의 진행 중

- PT ADHI와 PT Adhi Commuter Properti(ADCP)는 LRT City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완공 지원을 위해 PT Danantara Asset Management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지속. 다만 지원 규모나 구체적인 지원 형태는 미정

---

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14/45/2003905/pemerintah-matangkan-master-plan-pembangunan-giant-sea-wall
2) https://www.cnbcindonesia.com/market/20260909135548-17-766522/adhi-buka-suara-soal-rencana-suntikan-danantara-di-proyek-lrt-city

- 향후 자금 지원은 관련 검토 결과와 의사결정, 필요한 승인 사항 고려 후 현행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추진 예정

ㅇ [플랜트] 인니, WTE 사업에 中 전문 기술·자본 활용[3](Antara, 9/7)

- 인도네시아는 WTE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기업을 비롯한 해외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 PT Daya Energi Bersih Nusantara(Dener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년간 최신 WTE 기술 개발 및 건설에 적극 참여,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품질·비용 측면에서 타국과 경쟁 가능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중국 기업은 타국 기업보다 신속한 사업 수행 능력이 강점, 이에 따라 올해 초 진행된 1단계 WTE 사업 입찰에서 중국 기업의 수주 우세. 동 사업 3건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중국 기업은 Zhejiang Weiming(Bogor·Denpasar)과 Wangneng Environment(Bekasi)이며, 개발 단계에서 상호 간 협력도 원활하게 진행 중

- 한편 2단계 WTE 8건의 사업 입찰에는 중국 외에도 한국·일본·인도·싱가포르 기업이 참여. 최종 선정된 8개 대상은 인니 컨소시엄 4개와 해외 컨소시엄 4개이며, 프랑스 기업과 중국 기업이 주도

ㅇ [인프라] 발리 Gilimanuk-Mengwi 고속도로 건설 사업, 착공 지연[4](Bisnis, 9/10)

- 공공사업부(PU)는 Gilimanuk-Mengwi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FS 진행, PU 인프라 금융 국장 직무대행 Dedy Gunawan은 투자자의 사업 참여를 위해 현재 FS 보완 중. 또한 국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

- 한편 국가전략사업인 Gilimanuk-Mengwi 고속도로의 사업 추진 여부는 발리 주정부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부각. 발리 주지사 I Wayan Koster는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이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작용 중이라 지적

---

3) https://en.antaranews.com/news/430252/indonesia-taps-chinese-expertise-to-develop-waste-to-energy-system
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10/45/2003018/jalan-tol-gilimanuk-mengwi-tak-kunjung-dibangun-ternyata-ini-penyebabnya

- 특히 최근에는 사업 예정 구간 내 주민 소유 토지의 처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 동 토지는 토지수용을 위한 위치결정이 이뤄졌으나 공사 및 토지수용 절차 지연. Gilimanuk-Mengwi 고속도로는 △1구간 Gilimanuk-Pekutatan 54.7km △2구간 Pekutatan-Soka 23.17km △3구간 Soka-Mengwi 18.9km 등 총 3개 구간으로 구성될 예정

ㅇ [인프라] 인정부, 유료도로 13.5km 건설 예정[5](Bisnis, 9/7)

- PU는 '27년 유료도로 13.5km 건설 예정, 유료도로청(BPJT)을 통해 약 1.98억불(Rp3.5tril)을 투입할 계획. 동 사업은 현재 건설 진행 중인 Semarang-Panimbang 고속도로, Semarang-Demak 고속도로 1구간 및 서자바 Patimban 항만 연결 고속도로 등 3개 구간의 건설 지원 목적

- 또한 신규 도로 200.4km 건설, 932.71km 도로의 용량 확대 및 보수, 47.603km 규모의 정기 도로 유지보수 예정. 이와 함께 수마트라 지역의 재해복구, 도로·교량 관리, 현수교 128개 건설 및 473.9m 규모의 고가도로·지하차도 건설 등을 추진할 예정

ㅇ [인프라] PU, 내년 유료도로 사업 3건 입찰 준비 마무리[6](Bisnis, 9/9)

- PU는 '27년 입찰을 목표로 Pejagan-Cilacap, 반둥 도심권 유료도로, Sentul-West Karawang 등 3건의 유료도로 사업구조 최적화 추진. PU 인프라 금융 국장 직무대행 Dedy Gunawan은 국가예산 지원 최소화 등으로 민간투자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성 개선 중

- Pejagan-Cilacap 유료도로는 중부자바 Banyumas 지역 Ajibarang까지 노선 최적화, 국가재정 의존 없이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 반둥 도심권 유료도로는 Greater Bandung 지역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PPP 방식으로 추진 예정

- 또한 Sentul-West Karawang 유료도로는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입찰 준비의 효율성 및 신속성 향상을 위해 정부 사업으로 전환

---

5)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07/45/2002029/anggaran-infrastruktur-ketat-pemerintah-cuma-bangun-13-km-tol-tahun-depan
6)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09/45/2002694/pemerintah-matangkan-lelang-3-proyek-tol-tahun-depan-mana-saja

ㅇ [인프라] PU, Bitung 특별경제구역 접근도로 건설 추진[7](Bisnis, 9/13)

- PU는 북술라웨시 Bitung 특별경제구역(KEK)의 교통 연계 및 물류 유통 지원을 위해 1km 접근도로 건설 추진. PU 장관 Dody Hanggodo는 '25년 대통령 지시령 제11호에 따른 지역 도로 연결성 개선 사업을 근거로 올해 착공 계획

- 접근도로는 산업지역 물류 이동과 Bitung 특별경제구역 및 주변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연장 1,000m, 폭 2×10m 규모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조성, 중앙분리대 6m, 갓길 3m 및 U자형 배수로 설치 예정. 또한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야간 통행을 위해 도로 구간에 전주와 가로등 설치, 물류 유통 효율화와 지역 간 연계 강화 추진

- 이를 통해 도로·교량 등 기초 인프라 확충, 원활한 물류 이동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통합에 이바지할 계획

## 2. 주요 기업·기관 동향

ㅇ 한국, 인니 투자 확대 추진[8](Bisnis, 9/2)

- 한국 정부는 인니 내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 이와 더불어 한국은 인니 정부가 정책 수립·시행에서 국제사회와 기업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평가

- 양국 간 관련 정책 협의 및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지속 중이며, 인니 측은 양국 투자 관계가 기술 및 산업 발전 협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 또한 한국을 경제·기술 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 중

ㅇ 인니-중국, 300만호 주택사업 추진 위해 공동주택 건설기술 협력[9](Bisnis, 9/10)

- 주택정주부(PKP)는 300만호 주택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 인구 밀집 지역 공동주택 건설에 중국의 기술·혁신을 도입해

7)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13/45/2003704/akses-jalan-kek-bitung-dibangun-kementerian-pu-siapkan-jalan-1-kilometer
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02/9/2000918/korea-ingin-perluas-investasi-di-indonesia-kepastian-kebijakan-jadi-kunci
9)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10/47/2003013/ri-gandeng-cina-kembangkan-teknologi-rusun-untuk-program-3-juta-rumah

저소득층에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주택 공급 목표. 주택 정주부 장관 Maruar Sirait는 중국 기술을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여건과 법·제도에 맞게 조정할 계획, 중국 정부도 건설기술 선정에 앞서 토지 특성, 국가 공간계획 및 관련 규정 검토 예정

-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재는 현지 생산 제품 우선 사용, 품질 요건 충족 인도네시아 제품 및 인력 활용 방침. 특히 영세·중소기업과 국내 건설 인력의 주택 건설 공급망 참여 확대 목표

- 양국은 공동 기술 실무팀을 구성, 공동주택 건설 관련 법·제도, 부지확보 및 금융 조달 방안 등 검토 계획

ㅇ **Danantara, 차기 투자 분야로 에너지 및 디지털 경제 선정**[10](CNBC Indonesia, 9/7)

- Danantara 글로벌 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 상무이사 Pahala Nugraha Mansury는 에너지 및 디지털 경제를 차기 투자 유망 분야로 선정. 특히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와 더불어 데이터센터·AI 등 디지털 인프라 분야도 주요 투자 대상으로 검토 중. 다만 인도네시아 내 관련 역량 등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외부 파트너십을 추진할 예정

- 또한 정부의 100GW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전력 부문에서의 강화 목표, 특히 디지털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동 전력 발전 등을 활용할 계획

ㅇ **인니, 아시아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중심지 가능성 부상**[11](Kontan, 9/14)

-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PwC는 인도네시아가 높은 국내 디지털 수요와 데이터센터 공급 확대 필요성으로 인하여 향후 아시아 주요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인도·베트남·필리핀·태국 등도 주요 투자 확대 대상국으로 제시

---

10) https://www.cnbcindonesia.com/market/20260907172529-17-765945/danantara-ungkap-sektor-ini-bakal-jadi-motor-investasi-baru
11) https://industri.kontan.co.id/news/indonesia-berpeluang-menjadi-magnet-baru-investasi-data-center-asia

- PwC는 '5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데이터센터 투자액이 총 8.2조불(Rp144,000tril)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인도네시아는 국내 수요 대비 데이터센터 공급이 부족해 투자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로 평가. 특히 AI 확산과 해외 인프라 의존도 완화 등에 따라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전망

- PwC Indonesia 인프라 부문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전력 공급과 데이터 보안 등 인프라 여건이 향후 투자 유치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

ㅇ **PGEO, 데이터센터용 지열발전 전력 공급 추진**[12] (Kontan, 9/7)

- PT Pertamina Geothermal Energy(PGEO)는 지열발전을 활용해 인도네시아 내 친환경 데이터센터 및 AI 산업에 안정적인 기저전력을 공급할 계획. 서자바 Kamojang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및 사업성 검증을 추진 중

- PGEO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 요금 제도 개선, 재정·녹색금융 지원 확대와 함께 지열 개발 구역, 전력공급계획(RUPTL), 전력망, 전력구매계약(PPA) 및 상업 운전 일정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힘. 또한 약 3GW 규모의 지열 자원을 기반으로 설비용량을 '28년 약 1GW, '34년 약 1.8GW까지 확대할 예정

ㅇ **인니, 일본에 118.6억불 규모 교통·인프라 사업 32건 제안**[13] (Antara, 9/1)

- 정부는 일본 기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18.6억불(Rp207.64tril) 규모의 교통·인프라 사업 32건을 제안, '26.8.27~28일 도쿄에서 투자 포럼 개최. 동 포럼은 인니 대사관과 경제조정부가 공동 주관, 인니 국영·지방공기업 9개사 및 일본 기업·금융기관 36개사 관계자 약 50명 참석

- 제안 사업은 도로·고속도로 12건, 부동산·주택 10건, 철도·TOD 6건, 항만 2건, 물류 2건으로 구성, 기존 운영자산으로 약 75% 자산 매각·수익화, 사업 확장, 지분 매각 등 추진. PPP, 합작투자, 양허, 장기임대 등의 방식과 정부 보증 등 다양한 투자구조 적용

---

12) https://investasi.kontan.co.id/news/pertamina-geothermal-pgeo-siapkan-listrik-panas-bumi-untuk-green-data-center#goog_rewarded
13) https://en.antaranews.com/news/429367/ri-offers-us1186-bln-infrastructure-projects-to-japanese-investors

- 정부는 약 70년간 이어진 일본과의 투자협력을 기반으로 외국자본 투자 확대를 추진, 일본 투자자의 사업 참여 및 자금 유치 확대 계획. 특히 기존 운영사업 중심의 투자기회를 제공, 투자 위험 감소 및 교통·인프라 분야의 외국인 투자 확대 도모

ㅇ **일본, 서자바 Rebana 지역에 관심**[14](CNBC Indonesia, 9/8)

- 인니 정부는 서자바 Rebana 지역을 새로운 경제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경제조정부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협력, 일본 기업 등의 투자·사업협력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 중. 또한 관련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해 투자 유치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할 예정

- Rebana 지역은 Patimban 국제항, Kertajati 공항, Cisumdawu 유료도로, Cipanas 댐, Subang Smartpolitan 산업단지 등 국가전략사업을 기반으로 '21년 대통령령 제87호에 따라 산업·물류·녹색경제 중심지로 조성될 계획. 현재 13개 산업단지가 조성 대상으로 지정, 이 중 8개가 운영 중

ㅇ **인니, 러시아에 신규 에너지 탐사광구 138개 투자 요청**[15](Antara, 9/3)

- 프라보워 대통령은 러시아 기업에 신규 에너지 탐사광구 138개에 대한 투자 및 개발 참여 요청, 정유시설 및 저장터미널 등 양국 간 공동 에너지사업 추진 가능성도 논의. 인도네시아는 LNG(액화천연가스) 공급 여력이 충분해 일부 분야에서는 러시아산 가스가 필요하지 않으나, 러시아의 기술 활용 및 공동사업 추진에는 개방적 입장 표명

- 에너지 탐사 외에도 비료 생산 및 광물 가공 분야로 양국 협력 확대 추진, 인도네시아 비료 기업과 러시아 대기업 간 러시아 극동지역 가스 기반 비료 생산사업 공동투자 MOU 체결. 광물 가공 분야에서는 러시아 알루미늄 생산기업 Rusal과 협력 중, 대규모 정제시설 개발에 참여할 예정

---

14)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60908134516-4-766179/jepang-kepincut-rebana-di-jabar-peluang-bisnis-baru-dibuka-lebar/amp
15) https://en.antaranews.com/news/429799/indonesia-invites-russian-investment-in-138-new-energy-blocks

ㅇ 인니-불가리아, 무역·투자 협력 확대 추진[16](Antara, 9/14)

- 인도네시아와 불가리아는 양국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무역·투자 협력 확대 추진, 불가리아를 인도네시아 기업의 EU 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인니 무역부 장관 Budi Santoso는 '27년 초 발효를 목표로 인도네시아·EU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EU-CEPA) 이행에 대한 불가리아의 지원 요청

- 불가리아 부총리 겸 경제투자산업부 장관 Alexander Poulev는 양국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 농업, 자동차부품, 할랄 인증 육류 등을 유망 협력 분야로 제시. 또한 '27년 상반기 양국 간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재개를 제안

- '25년 양국 교역액은 약 2.3억불(Rp4.08tril)로 인도네시아가 6,420만불(Rp1.14tril)의 무역흑자를 기록, 주요 수출품은 니켈광, 알루미늄, 철강 제품, 마가린 등. 반면 수입액은 8,310만불(Rp1.47tril) 기록, 주요 수입품은 밀, 의료기기, 향신료, 가공되지 않은 담배 및 방산 장비 등

## 3. 정부 정책동향

ㅇ 인국회, 자바 외 지역 산업단지 개발 촉구[17](CNBC Indonesia, 9/3)

- 하원 제7위원회 위원장 Saleh Partaonan Daulay는 자바섬 산업단지 편중 지적, 투자 및 고용 창출 관점에서 지역 간 균형을 위해 수마트라·칼리만탄 및 동부 인도네시아로 산업단지 개발 확대 필요성 강조. 특히 북수마트라의 산업단지 수가 자바에 비해 적은 점을 지적, 산업단지 편중이 특정 지역에 경제·고용 기회를 집중시키는 요인이라 설명

- 이에 자바 외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 촉진 정책을 촉구, 지역별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아울러 산업단지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해 관련 지역의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및 기업 주도의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병행 필요성을 밝힘

---

16) https://en.antaranews.com/news/431320/indonesia-bulgaria-seek-to-boost-trade-and-investment
17) https://www.cnbcindonesia.com/lifestyle/20260902144401-33-764379/5-negara-yang-bangun-ibu-kota-baru-termasuk-ikn-indonesia

ㅇ 프라보워 대통령, 국영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촉구[18](Antara, 9/5)

- 프라보워 대통령은 천연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및 투자·경제적 효과 확대를 위해 산업 고부가가치화와 국영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촉구. 최근 서부자바 Hambalang 회의에서 현재까지 국영기업 290개를 정리하여 최대 28.4억불(Rp50tril)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26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최소 700개 기업을 정리하는 등 총 56.7억불(Rp100tril) 규모의 절감 목표

- 아울러 효율성, 재무건전성, 전문성을 갖춘 국영기업 체계 구축을 위해 구조조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 이를 통해 국영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하고 국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확대 도모

ㅇ 인니, 투자 증가율 7% 목표[19](Antara, 9/1)

- 재무부 장관 Purbaya Yudhi Sadewa는 '27년 경제성장률 6% 달성을 위해 투자 증가율을 최대 7%까지 끌어올리는 목표 제시, 정부·민간·Danantara 간 협력을 통해 투자 확대 추진. 정부는 투자 활성화 지원 및 민간 기업을 주요 투자 주체로 두는 한편, Danantara는 전략·산업 고부가가치화 분야의 생산적 투자 확대 추진

- 또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거시경제 안정 및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심리 및 지속 가능한 투자 지원, 물가 관리와 경쟁력 있는 금리 유지 목표.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과의 협력을 통해 루피아화 안정 추진 계획

ㅇ 인니, 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추진[20](Rri, 9/4)

- 재무부 차관 Juda Agung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활동 및 투자 장벽 완화 필요성을 강조, 구조개혁·규제 간소화, 국제협력, 혁신·기술 활용 등 3대 분야 강화 추진. 또한 금융부문 개발 및 강화에 관한 법률 마련, 천연자원 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공기업 조직개편을

18) https://gorontalo.antaranews.com/berita/422748/prabowo-dorong-percepatan-hilirisasi-dan-penataan-bumn
19) https://en.antaranews.com/news/429364/indonesia-targets-seven-percent-investment-growth-to-spur-growth
20) https://rri.co.id/en/business/2703108/indonesia-promotes-regulation-reform-to-spur-investment

통한 거버넌스·효율성 제고

- 아울러 AI 등 신기술을 생산성 향상 동력으로 제시, 관련 인프라와 전문인력 및 디지털 생태계 확충 필요성 언급. 민간 참여를 통해 투자 장벽·혁신·기술 도입 및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자·생산성·고용 및 국민후생 제고 추진

ㅇ **인니, 경제성장을 위한 녹색투자 확대 추진**[21](Antara, 9/8)

- 투자·다운스트림 산업부(BKPM)는 경제성장 및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해 관련 투자전략을 추진 중. BKPM 투자규제 및 완화 부문 국장 Dendy Apriandi는 내수 제품의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에는 녹색에너지가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이에 따라 투자 정책에 ESG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또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순환 경제, 녹색교통 및 녹색기술 도입 등을 포함한 녹색투자 구축 필요성 강조. 정부는 ESG 원칙에 부합하는 녹색금융 및 탄소 가격제와 같은 제도 마련 중

- 이외에도 재정·비재정적 인센티브 및 불이익 제도를 강화할 계획. 아울러 녹색경제는 8% 성장 목표와 관련, '25~'29년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의 5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추진할 전망

## 4. 녹색산업 동향

ㅇ **인니, 신재생에너지 개발 총력**[22](Antara, 9/2)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차관 Yuliot Tanjung은 지정학적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응,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8대 국정과제의 핵심 안건으로 제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으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약 97불까지 상승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연될 경우 에너지 보조금이 기존 예산 대비 168.2억불(Rp300tril)까지 추가 소요될 수 있음을 경고

21) https://en.antaranews.com/news/430511/indonesia-advances-green-investment-to-drive-economic-growth
22) https://en.antaranews.com/news/429580/govt-accelerates-renewable-energy-development-amid-global-turmoil

- 정부는 '26년 에너지 보조금 117.8억불(Rp210.1tril), 에너지 안보 관련 재정에 관한 지출 213.8억불(Rp381.3tril)을 편성, B50 바이오디젤 의무화 및 태양광·지열·수력발전 확대 추진

ㅇ **인니-뉴질랜드, 말루쿠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23](Antara, 9/14)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뉴질랜드와 함께 추진 중인 NZMATES (New Zealand-Maluku Access to Renewable Energy Support) 사업을 확대해 말루쿠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 접근성 개선 추진. 소규모 섬들로 구성된 지역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필요

- 에너지광물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존국(EBTKE) 국장 Eniya Listiani Dewi는 양국 간 재생에너지 협력을 5년간 추진, 2단계 사업에 진입했다고 설명. Pulau Tiga 섬은 기존 디젤발전기로 하루 약 6시간만 전력을 공급받았으나, 인니 정부·뉴질랜드·PT PLN의 협력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개선·확대해 '24년부터 24시간 전력 공급 가능

ㅇ **PT HDF, Pertamina와 인니 그린수소·에너지 저장 사업 공동개발**[24] (Renewablesnow, 9/10)

- Hydrogene de France SA(HDF Energy)의 현지 자회사 PT HDF Energy Indonesia는 PT Pertamina New & Renewable Energy(Pertamina NRE)와 그린수소 및 에너지 저장 사업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개발 연구협약을 체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수소 생산과 산업 분야의 수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

- 동 협력은 HDF Energy의 Renewstable[25] 발전소 개발 경험을 활용.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저장 시스템을 결합,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디젤 발전 의존도가 높은 도서 및 오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23) https://en.antaranews.com/amp/news/431281/indonesia-new-zealand-expand-renewable-energy-program-in-maluku
24) https://renewablesnow.com/news/hdf-pertamina-team-up-for-green-hydrogen-storage-in-indonesia-1300971/
25) Renewstable : HDF Energy사가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생산 및 저장 시스템 브랜드

- 또한 HDF Energy, PT PLN 및 국영 인프라 금융기관 PT Sarana Multi Infrastruktur(PT SMI)는 인도네시아 내 Renewstable 발전소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MOU를 지난해 여름 체결한 바 있음

ㅇ 인니, Lampung 바이오에탄올 개발센터 구축 추진[26](Antara, 9/14)

- 정부는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 완화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해 Lampung주 Tegineneng에 바이오에탄올 개발센터 구축 추진. 수수를 통한 기술개발 완료후 카사바, 옥수수 등 활용한 생산기술 검토

- 동 사업에는 투자·다운스트림산업부, Lampung주 정부, PT Pertamina NRE, PT Toyota Motor Manufacturing Indonesia(TMMIN), PT Toyota Tsusho Indonesia(TTI) 등이 참여. MOU 체결과 수수 재배, 초기 10ha 규모 부지 개발 등 통해 사업 착수

- 생산능력은 430,000㎘를 목표로 농가와 국영 및 민간기업을 연계한 바이오에탄올 공급망 구축 및 국내 휘발유 수요 대응 추진. 통합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 및 에너지 안보 강화 계획

ㅇ 신수도 관련 현지 언론보도 종합

- 신수도 개발 '27년 우선사업으로 추진[27](Bisnis, 9/1)

  · 신수도청(OIKN)은 신수도 개발이 '27년에도 주요 우선사업으로서 정부 업무계획 및 국가전략사업(PSN)에 포함됐다고 밝힘. 신수도는 칼리만탄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전략사업 29건 중 하나이며, 정부핵심구역(KIPP)내 정부청사와 업무시설 조속한 완공 목표

  · 또한 입법·사법기관 청사와 국가공무원용 공동주택 건설을 지속, 공무원의 단계적 거주 이전 지원 계획. KIPP 1B·1C 구간 도로 및 KIPP 1A 구간 도로 정비, 상수도 관망·저류지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도 병행 예정

26) https://en.antaranews.com/news/431276/govt-builds-bioethanol-center-in-lampung-to-bolster-energy-security
27)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01/45/2000462/oikn-pastikan-ikn-tetap-jadi-proyek-prioritas-prabowo-2027

- 신수도 개발사업, ’28년까지 추가 예산 8.9억불 필요[28](Bisnis, 9/1)

  · 신수도청(OIKN)은 ’28년까지 신수도 개발사업에 8.9억불(Rp15.8tril)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힘. 이 중 2단계 개발사업에 4.1억불(Rp7.22tril), 3단계 개발사업에 4.8억불(Rp8.57tril)이 각각 소요 예정

  · ’27년 기준 OIKN의 전체 예산 소요액은 12.6억불(Rp22.5tril)이나, 현재 잠정 예산한도는 3.8억불(Rp6.7tril) 수준. 추가 예산은 중앙정부 핵심구역(KIPP) 개발과 국가공무원용 청사·주거시설 건설 등에 투입될 예정, 예산 요구액이 모두 반영될 시 계획에 따라 개발 진행 전망

2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01/45/2000487/otorita-ikn-butuh-dana-rp158-triliun-untuk-konstruksi-hingga-2028

## □ 중점 프로젝트 동향

### ① BSD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 (**사 업 비**) 미확정
- (**사업내용**)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샵하우스)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토지가 협상, 자체 FS 완 - FS 완료, 주주간협약 문구 협의중
- **(`26년 센터목표)** 투자 의결 (`26.11월 예상)

ㅇ (주요동향) 대우건설-SML, SHA 문안 수정중

### ② 칼리만탄 지속가능 우드펠릿 공급망 구축

< **사업 개요** >

- **(원개발사)** Innovative Energy Solution (IES)
- **(참여기업)** 남동발전 (Offtaker), 대아이앤씨 등
- (**사 업 비**) 미확정
- (**사업내용**) 우드펠릿 생산설비 건설·운영, 남동발전 등에 장기 공급
- (**추진현황**) 조림지 토지용도 허가 취득 (`23.5) - 원개발사 IES (싱가포르) 설립 (`24.10) - 인니 자회사 설립 (`25.1) - KIND 사전검토위 통과 (개발비 및 MOU 체결 승인) (`26.3) - 대아이앤씨, 자금지원 FS신청, 승인
- **('26년 센터목표)** FS 결과 검토 / 결과에 따라 투자심의 부의

ㅇ (주요동향) 자금지원 FS 협약서 체결 完 / 현지실사 完

##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아르고 마눙갈 (Argo Manunggal, 마루베니와 산단 성공적개발사례 보유)
- **(참여기업)** Gaya (GS건설 싱가폴법인), INA(예상) 등
- (**사 업 비**) 미확정
- (**사업내용**) 수방 지역* AMG가 원소유주와 독점 가계약중인 대규모 부지에 전기차 제조업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AMG-Gaya 전반적 협력 MOU 체결 - `25.10월 GS 사전사업심의 통과, DD비용 승인 - GS DD 진행중
- **('26년 센터목표)** DD 완료 및 투자심의 부의여부 검토

ㅇ (주요동향) AMG 토지실사 마무리단계 / 사업구조 업데이트

## ④ 까얀1 수력발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인니전력공사(PLN)
- **(참 여 사)** 원개발사(KHE), 삼성물산, 수자원공사(예정) 등
- (**사 업 비**) 약 27억불 (EPC 약 15억불)
- (**사업내용**) 900MW 수력발전 댐 건설후 30년간 운영, 전력판매 수익창출
- (**추진현황**) 원개발사 제반 인허가 취득 (~`20) - 중기전력계획(RUPTL) 동사업 포함 (`25.5) - 삼성물산-KHE JV DPT 등록 (`25.12) - `26.3 KIND FS 신청
- **('26년 센터목표)** FS 지원대상 선정 (完) / FS 수행

ㅇ (주요동향) KIND 컨설팅 FS 용역 계속

- 특이사항 및 변동사항 없음

## ⑤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투자의결 完)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SM플러스 (시나르마스그룹 계열사) – 한투그룹, KIND, S펀드 출자 싱가포르 SPC
- (**참여기업**)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사 업 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본사 투자의결(`25.9.15) / 골조준공식 개최(`26.6) / 수요가 협상중
- **(`26년 센터목표)** 준공 및 운영준비 완료 / 후속안건 발굴

ㅇ **(주요동향) 공사 및 수요가 협상 마무리 단계**

- 10.31~11.1 양일간 준공식 일정 확정